

# 수좌스님들 장기기증 ‘활발’



설정 스님

“스님들이 죽어서 육신을 불자들에게 회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나, 죽을 때 몸과 재산을 모두 회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덕사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어떠한 존재도 내 생명이 아닌 것이 없다. 내 생명처럼 지극하게 모시고 섬기는 실천 방법의 하나가 장기기증이고 생명나눔이다.” (선원수좌회 복지위원장 의정 스님)

조계종 수좌스님들이 앞장서서 장기기증 운동에 열된 홍보와 실천을 보이고 있다. 2005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를 통해 뇌사자 장기, 사후 각막과 시신기증에 동의한바 있는 설정 스님이 최근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의정 스님(양평 상원사 용문선원장)은 3월 5일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신청서에 서명하고 뇌사자 장기기증과 사후 각막기증을 서약했다.

설정 스님은 아직 스님들의 장기기증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신 전체를 기증한 스님의 모습은 불교계의 주목을 받았

다. 스님은 자신만큼 타인의 생명도 중요하고, 우주 전체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며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정 스님은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 불자들의 의무이며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인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장기기증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결국 생명의 소중함과 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율도 불살생이며 장기 기증 실천이 부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설정 스님에게 일본 대지진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참상이었다. 스님은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은 일본 대지진에 대해 ‘검탁’의 절정이라며 불자들이 국가를 뛰어 넘어 인류애를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기증 활성화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며 스님들의 동참도 더 많은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스님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출제자들이 모두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승속 모두 육신에 집착하는 경향이 크다. 버리게 될 몸이 다른 생명에게 도움이 된다면 소중한 일이다.”

설정 스님은 입적한 출제자들의 수이나 사람의 각 중 행사 때 전달되는 꽃다발 대신 그 비용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지시한다. 스님들이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듯

외형적인 호화스러움을 줄여야하며 검소한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겸손, 하심, 검소해야 할 종교인들이 요즘 너무 부티를 내고 있다. 내가 입적하면 가사장삼은 태우고, 장기는 지체없이 기증 하라고 했다. 장기기증은 불교가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다.”

지난해 11월 전국선원수좌회가 발간한 조계종 선원청구 편찬위원장이기도 한 의정 스님도 선원청구 실천의지를 담아 장기기증에 동참했다.

의정 스님은 “청규를 만들면서 21세기에 맞는 청규를 만들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 청규에 이 시대에 맞는 생명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게 되면서 장기기증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박기범 · 이나은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사진 좌)이 캠페인에 참석해 재가자들에게 직접 동참 서약을 받고 있다.

##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 발 만져도 기 뺏기지 않아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엄지회’ 박종진 씨



2000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발반사 교육이 개설되자 박종진(54·사진)씨는 가족들에게 해줄 요량으로 수강신청을 한다. 이 교육에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화)에서의 봉사활동이 필수로 포함돼 있었다. 그렇게 우연히 시작한 봉사활동이 어느새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교육 과정에는 한 달에 2번 봉사활동에 참석하게 돼 있지만 박종진씨는 발반사 봉사활동에 큰 보람을 느끼면서 처음부터 매주 참석했다.

“중증 장애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보람을 느껴요. 발반사를 받으신 분들이 흐뭇해하니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밝아지는 것 같아요.”

박종진씨는 교육 과정 상 처음 봉사활동에 참석했을 때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힘들기만 했다. 마사지를 받는 분이 아프다고 하면 당황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노하우가 생겨 마사지 대상자들과 일상 문제에 대한 상담까지 해주고 있다. 중증 장애인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건강까지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발반사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해요. 중증 장애인분들이 일상의 문제로 이것저것 묻기도 하시거든요. 단순한 봉사뿐만 아니라 상담까지 병행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가까워 지기도 해요.”

박 씨는 현재 5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봉사팀 ‘엄지회’에서 활동 중이

다. 처음에는 8명이 함께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몇몇 봉사자들이 팀을 떠났다. 각 중 봉사활동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발반사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은 편이다. 봉사자들이 ‘기를 뺏긴다’는 인식이 아직도 강하고, 남의 발을 만져야 하는 상황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반사 봉사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박종진씨는 10년 이상 활동해 오고 있는 것이다.

“저는 오히려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면 건강해지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도 제가 건강한 편이에요. 발반사 봉사활동이 참 좋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도 박 씨가 봉사활동 참여 후 여유로워졌으며 박종진씨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봉사활동의 보람과 함께 매주 팀원들을 만나 하는 것도 큰 활력이 된다. 10년째 만나다 보니 이제는 가족 같고, 형제 같은 끈끈한 애정이 생긴 것이다. 지난해에는 봉사팀 창립 10주년을 맞아 조촐한 생일 파티를 열기도 했다.

“다나만 사찰이 있는데, 거기서 부처님의 좋은 기를 받아다가 중증 장애인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발반사 봉사도 이 분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불교계 복지관이다 보니 불자로서 봉사활동 하기도 마음이 편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박종진씨는 봉사도 수행처럼 마음을 닦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봉사활동 초기에는 기도할 시간도 없어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은 싹 사라졌다고 한다.

박 씨의 남편은 50대 중반의 나이에 중 장애인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큰 불화가 없다. 박 씨는 이 모든 것이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것으로 믿는다. 박종진씨는 선목 해자 스님의 108산사 순례회에도 매주 남편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불자들이 봉사활동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더욱 늘어나서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에게 발반사 서비스를 해주고 싶어요”

박기범 기자

## 구제역 살처분, 간디는 뭐라 했을까

### 불교여성개발원, 구제역 관련 생명살림 위한 여성불자 토론회

“간디는 ‘돼지의 절규’를 다룬 영상물을 몇 초 보고나서는 금방 외면했을 것이다. 너무도 잔인해서, 그것도 부처님의 제자 일천만이 있다는 한국에서 일어난 일, 입만 열었다 하면 자비인데 ‘불살생은 한 국문화의 어디에 있을까?’ 물으면서 그는 깊이 낙담했을 것이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이 3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구제역과 살처분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개최한 ‘생명살림을 위한 여성불자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다.

허우성 교수(경희대 철학과)는 이날 토론회에서 ‘간디의 송아지와 살처분’ 이

라는 주제로 비폭력 평화운동가로 잘 알려진 간디의 예를 들어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피해와 가족전염병이 주는 의미와 불교계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성찰했다.

허 교수는 “1928년 간디는 불구가 돼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송아지 한 마리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결국 그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독극물을 주입해 안락사 시켰다”며 “이 사건을 놓고 간디에 대한 여론은 악화됐고 간디는 ‘헐사(살생)’와 ‘아힌사(불살생)’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이어 “분노나 이기적 의도에서 생명이 고통을 야기하거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살생이며 순수하고 사심 없는 의도에서 영적이거나 신학적 이익을 줄 목적으로 생명체를 죽이거나 고통을 가하는

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불살생”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돼지의 절규’는 우리 스스로도 아쩔 수 없는 생명의 막이사슬을 다루고 있다. 한국인의 정서와 식문화 전통 때문에 당장 채식주의자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채식문화를 확산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미송 전임연구원(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 연구원)은 “우리에게 구제역 피해가 적었다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지나갔을 것”이라며 “문제의식도 인간중심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희 연구위원(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은 “건강 산모 · 산부 교실운영, 친환경 농산물 조합 이용 등 여성불자들이 생명문화 구축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 민족문화실천위원회

#### ‘일파만파 실천단’ 모집

중앙선도회 민족문화수호실천위원회(상임위원장 손안식)가 실천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일파만파(一波萬波) 실천단’ 단원 모집에 전격 나섰다.

일파만파 실천단은 △우리동네 문화재 지킴이 및 주변청소 △해박한 문화해설사 되기 △1배 100원 보시 △실천단원 가입 인증샷 올리기 △네이버 해피빈 모으기 △ARS 후원 등을 추진한다. 1만 명 단원 모집에 나선 실천단은 3월 12일부터 조계사 앞마당에서 출가 · 열반제일 신도대중공사 정진주간(8일)동안 모금부스와 일파만파 실천단 가입 인증샷 코너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 심인불교대학 <心印佛敎大學>

### 2011년 제1기 심인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근본사상(佛敎根本思想)과 대승보살(大乘菩薩)의 실천수행(實踐修行)을 기본(基本)으로 하여 즉신성불(卽身成佛)을 대원(大願)하는 ‘심인불교대학’ 법우(法友)를 모집합니다.

모집과정	재가불자, 법사, 비구, 비구니(승려)
교육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학 : 2011년 4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li> <li>졸업 : 2011년 10월 2일 (일요일) 6개월 과정</li> </ul>
교육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교(佛敎)란 : 근본불교(根本佛敎)의 기본사상(基本思想)</li> <li>■ 밀교(密敎)의 삼대사상(三大思想) - &lt;육대(六代), 사만(四曼), 삼밀(三密)&gt;</li> <li>■ 만다라(曼荼羅) &lt;화엄(華嚴)사상(思想)&gt;</li> <li>&lt;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gt;</li> <li>&lt;우리나라 만다라, 화엄신중, 감로만다라(탱화)&gt;</li> <li>□ 불신론(佛身論) = 밀교의 삼륜신(三輪身), 현교의(三身佛)</li> <li>□ 진언과 수행(眞言과 修行) = 삼밀정진(三密精進)</li> <li>□ 진언연승(眞言念誦) = 육자대명왕진언(육마니반메흠)</li> </ul>
특별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상(空思想) = 쉼이란? • 운명과 숙명(運命과 宿命)이란?</li> <li>• 명상법(冥想法) = 위빠사나 수행법, 참선수행법</li> <li>• 밀교(密敎)의 성불론(成佛論)과 현교(顯敎)의 성불론(成佛論)</li> </ul>
교육시간	• 매주 : 일요일 오후 2시부터 ~ 오후 4시까지 2시간
교육장소	• 무애정사 (심인불교대학) • 법사과정 : 대학졸업자

※ 수강료 교재비 무료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 심인불교대학 무애정사

문의 : 031)675-3837, 팩스 031)675-3827, H·P 011-9356-3653 (범운합장)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688-7번지 삼현빌딩 3층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77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4월 14일까지

◆ 개강일시 : 2011년 4월 15일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교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편 ☎ 02)741-0495, 0496